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세계 각국, 경제 활성화 목표로 백신여권 도입 추진



CONTENTS

01

포커스

- 세계 각국, 경제 활성화 목표로 백신여권 도입 추진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BiIntelliSense와 VeeMed, RPM 파트너십 체결 4
 - 유럽, COVID-19 상황에서의 디지털헬스 혁신 사례 4
 - EU의회와 이사회, 디지털 COVID-19 증명 제안에 동의 5
 - 인도, 핵심 AI 이니셔티브 추진 5
 - 일본, 여성의 건강과 생활개선에 초점 맞춘 펌테크 시장 주목 6
 - 모바일헬스, 새로운 형태의 센서 내장형 의류 시장으로 확대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ASCO,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에 관심 고조 7
 - 미국 FDA, 소아 환자들 대상 의료기기 신속승인 저조 7
 - 독일, 백신 유리병 생산에 9천만 유로 지원 8
 - EU집행위원회, BioNTech-Pfizer 백신 추가 도입 계약 체결 8
 - WHO, 새로운 글로벌허브플랫폼 독일에 설립 9
 - Estée Lauder 분기실적, 전년대비 16% 증가 9
 - 불안과 우울증,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생산성 손실 추정 10
 - 지적재산,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 담당 10
-



세계 각국, 경제 활성화 목표로 백신여권 도입 추진

COVID-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단면역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논의 중이며, PCR 검사나 항원검사 결과 또는 백신 접종이력 등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 각국의 출입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하는데 활용되는 백신여권 도입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전망

[1] 사람의 이동과 경제활동의 장벽을 낮추는 백신여권

■ 최근 등장하는 백신여권은 기존의 예방접종 증명서와 달리 COVID-19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개인 기기에 저장해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입국 관리를 효율화한 것이 특징

- 백신여권 개발 및 사용은 여러 방식이 혼용되겠지만 상호연계 움직임도 있어 최종적으로는 사양에 관계없이 ‘건강·의료정보의 디지털 인증’이란 구조 자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전망
- 현재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는 서류로 증명하지만 별도의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위조 문제가 있는 반면 백신여권은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하기 때문에 위조방지에 효과적
- 그러나 선결과제로서 첫째 ‘백신 접종이 행동제한 완화 조건이 되는 데 따른 불공평함’으로 IT를 활용한 예약이나 정보수집이 어려운 고령자나 저소득층, 접종 비희망자를 포함하면 백신접종 이력을 사회경제 활동이나 이동 요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
- 둘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각국 항공사나 출입국 기관에 건강·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저항을 느끼는 개인이 많다는 점으로, 백신여권은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제공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후 데이터 저장방법과 저장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 구체적으로는 앱을 생체인증으로 작동하고, 블록체인 방식을 채용하는 최신 보안을 적용하는 한편 데이터 본체는 항공사나 출입국 기관에 넘기지 않고 판정결과나 인증만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
- 셋째 백신 효과에 관한 평가에서 오는 문제로, WHO는 백신 접종은 COVID-19에 감염돼도 중증화는 막지만 전염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완화 같은 조치에는 소극적이며 비접종자 차별에도 우려를 표시
-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백신의 효과에 회의적인 여론이 있는 국가가 있으며, 집단면역을 위해 접종을 권장하는 정부와 WHO의 방침이 상충하면서 COVID-19 대응에 있어 혼란을 초래
- 반면 백신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오는 폐해도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뉴욕주는 백신여권을 국내 이동이나 레스토랑, 오락시설 입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

[2]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중인 백신여권

■ 현재 백신여권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 간 이용자 확보 경쟁과 연계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디지털화된 건강·의료정보를 이용한 출입국 인 증은 광범위하게 보급될 전망

□세계 각국이 검토중인 주요 백신여권□

구분	명칭	활동주체	기능
민간 조직	커먼 패스(Common Pass)	커먼즈 프로젝트, 세계경제포럼, 커먼 트러스트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R검사 음성·백신접종 증명의 진정성 확인. 검사 결과가 각국의 입국요건에 적합한지 검증. 건강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개인정보는 하루 만에 소각 예정. MS, 세일즈포스, 메이요클리닉 등이 백신증명이니셔티브 조성(1월)
	트래블 패스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을 통한 본인확인 및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연계 출입 국가의 입국기준 확인
	VeriFLY	아메리칸항공 외 하이엣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가의 입국기준·필요서류 확인, 건강정보 등록 건강정보, 신분증명, 여정 등을 앱 상에 표시
	ICC AOK	ICC(국제상업회의 소), SOS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기술로 건강정보 보존 건강정보는 개인 디바이스에 저장
광역	디지털그린증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 검사결과 음성, 감염 후 회복을 증명 역내 이동 시 자유로운 출입국과 자가격리 면제
국가 · 지 자 체	그린패스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2회 접종 후 1주간 정부 사이트에서 증명서 교부 동 증명서 기반 그리스, 키프로스 자가격리 면제 합의(2월)
	무역건강코드, 국제판 국제여행건강증 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일 중국대사관·영사관 사이트에 검사결과 송부하고 그린건강코드 취득 출국하는 자국민이 주대상, 증명을 앱·종이에 기록 상호승인이 가능한 국가를 찾아 절충중 (對이스라엘, 3월)
	디지털 여권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국민의 해외 출입국 대상, 백신증명을 다운로드 출입국 절차 시 사용, 사회생활에도 이용 방침
	COVID-19면역 여권	아랍권(UA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카타르 등이 백신접종을 증명 에티하드, 에미레이트 항공이 자사 앱에 백신증명기능 탑재
	엑셀시오패스 (Excelsior)	미국 뉴욕주(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이력 등을 앱에 저장, QR코드 표시 시설이용 및 이벤트 참가에 필요, IBM이 협력
일본			
정부	TeCOT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유학생용, 앱으로 검사예약과 결과 수령 및 디지털 보존 가능, 향후 백신접종 이력도 대상
	백신접종 이력시스템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접종 기록을 기반으로 해외 출입국으로 한정해 증명서 발행 검토(3/15)

• 커먼패스(Common Pass) 개발·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인 ‘커먼즈 프로젝트’는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비영리조직(NPO)으로, 록펠러 재단의 지원하에 스위스에 설립됐으며 커먼패스 개발은 '20년 7월 37개국 민간기업이 가세하면서 시작

- 10월 공표된 기본사양은 G7 외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52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항공사의 시범운용이 시작됐고 현재 각국이 도입을 준비
- 한편 EU는 4월말 백신여권의 제도화를 승인하고 백신 효과를 감안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안했는데 EU판 백신여권인 '디지털그린증명서'(단 EU집행위는 'EU코로나 증명'이란 명칭을 제안)를 휴대하면 EU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왕래할 경우 격리조치를 면제
- 이스라엘은 해외 방문과 일상적인 활동에도 백신접종 이력을 활용중으로, 2월 시작한 그린패스는 2회차 접종 후 1주일 경과된 거주자가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

[3] 백신여권 도입을 둘러싼 각국의 상황

■ EU는 여름 관광시즌을 앞두고 백신여권 도입을 결정한 상태며 미국은 정부 차원의 백신여권 도입을 검토하겠지만 일단 민간이나 州정부 대응에 맡긴다는 방침

- (미국) 바이든 정부는 4월 초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접종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백신여권 자체를 제한할 생각은 없고 주 정부 혹은 민간조직에 대응을 맡길 방침
- 미국은 커뮤니티 리더나 교회·의료관계자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백신여권 도입 강행은 오히려 반백신 운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민간기업도 각국이 상호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백신여권을 개발 중으로 미국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여권 개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
- (유럽) '21년 여름 백신여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EU는 관광시즌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일부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백신여권의 도입을 추진
- EU는 백신접종을 이유로 한 규제완화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따라 백신, 여권 등의 용어 대신 '디지털 그린 증명서' '디지털 COVID-19 증명서'란 명칭을 쓰는 한편 국외이동에 필요한 서류로 취급하거나 비보유자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로 합의
- (중국)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해외 왕래 규정을 주도할 목적으로 백신 자체와 백신여권을 활용중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중남미 국가에 자국산 백신을 제공하며 중국판 백신여권이 통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일본) 다수의 외국인이 왕래하게 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COVID-19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백신여권 사양·운용을 참고하면서 독자적인 백신여권을 광범위하게 검토 중

[日本総合研究所, 2021.05.18.; 野村総合研究所, 2021.05.]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BioIntelliSense와 VeeMed, RPM 파트너십 체결

■ 미국 의료테크 바이오인텔리센스(BioIntelliSense)사와 가상진료업체 비메드(VeeMed)사는 사용하기 어렵고 증상별로만 측정이 가능한 기존 원격환자모니터링(RPM) 시스템 대신 웨어러블 기기와 분석기술이 결합되고 확장 가능한 RPM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 양사가 추진하는 RPM 시스템은 높은 정밀도로 장기간의 시계열에 걸친 환자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 가상진료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VeeMed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플랫폼과 BioIntelliSense의 의료 웨어러블 기기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사에게 제공
- BioIntelliSense의 웨어러블 기기인 BioSticker와 BioButton은 환자의 몸에 부착하는 기기로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BioSticker는 COVID-19 증상의 조기 발견 성능을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28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획득

[Medical Device Network, 2021.05.12.; CISION, 2021.05.11.]

유럽, COVID-19 상황에서의 디지털헬스 혁신 사례

■ 유럽 각국은 COVID-19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인 공공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COVID-19복구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U의 보건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의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1억 유로 규모의 EU4Health 프로그램을 제안
-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확산 속도가 매우 늦었으나, COVID-19 상황에 직면한 '21년 초 7,200만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을 법적으로 전자의료기록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과 COVID-19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
- 프랑스는 '19년에 새로운 헬스케어 법령을 채택하면서, 상호운용성에 주안점을 둔 전자의료기록 플랫폼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헬스케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노르웨이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인 The PatientSky와 클라우드 기반 표준 비디오 플랫폼인 Confrere, Helseboka, Helsenorge 등에 기반한 가상 진료를 적극 권장

[Healthcare IT News, 2021.04.12.; Mobihealthnews, 2021.03.26.]

EU의회와 이사회, 디지털 COVID-19 증명 제안에 동의

■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EU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며 EU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COVID-19 증명서(Digital COVID Certificate)’ 규정에 대해 EU의회와 이사회(Council)가 합의 도출

- EC가 제안한지 2개월만에 합의에 도달한 디지털증명계획은 모든 EU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백신 접종 여부, COVID-19 감염 진단 및 회복 등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되며, EU 시민들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형태로 개발
 - * COVID-19 증명은 EU 내에서 통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EU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및 종이 형태로도 발행될 예정
- '21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는 COVID-19 증명 규정은 회원국의 증명 발급 등에 6주가 소요될 전망이며, EC는 디지털 COVID-19 증명의 개발과 테스트, EU 회원국 내 보급을 위해 1억 유로를 지출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1.05.20.]

인도, 핵심 AI 이니셔티브 추진

■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동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가상현실 및 로봇공학(robotics)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20년 4억 7,7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계획을 추진 중

- 인터넷 접근의 제고, e-거버넌스의 증진, 전자 플랫폼 기반 금융과 교육, 의료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디지털 인도 계획은 1천만명에 달하는 인도 젊은이들에게 산업 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스킬 관련 교육 훈련도 제공
- AIMResearch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안면인식, 인구 밀집지역 분석, 생체 정보 신원증명, 범죄 조사, 교통 및 혼잡도 관리, 여성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산림 최적화, 하천 정화, 호랑이 보호, 디지털 농업, 디지털 학습 등의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
 - *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미-인도 인공지능 계획(US-India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을 '21년 3월에 출범
- 인도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분석과 머신러닝 등을 위한 포털 MCA 3.0,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것을 집적한 포털인 India AI,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등을 설립

[Analytics India Magazine, 2021.05.21.; Live Mint, 2021.03.18.]

일본, 여성의 건강과 생활개선에 초점 맞춘 펌테크 시장 주목

■ 여성의 건강문제나 라이프스타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칭하는 펌테크(Femtech)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특유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도 증가

- AI를 이용해 불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비볼라(vivola)社は 불임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의 DB에서 자신과 비슷한 이들의 치료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펌테크를 데이터와 연결해 치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급성장
- 현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창업한 키즈퍼블릭(Kids Public)社は 여성 특유의 마음이나 신체적인 피로움을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으로, 임신에서 출산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여성의 상담에 직접 대응하고 있어 펌테크 업계에서도 이채로운 기업으로 평가
- 철도회사인 오다큐(小田急)전철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펌테크를 활용해 일하는 여성의 생활과 업무의 양립을 지원
- 동사는 '18년 9월 불임치료·유산상담 창구, 같은 해 12월 산부인과로 특화한 온라인 의료상담 개시 등 펌테크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며 여성 특유의 신체적인 문제가 커리어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회사로 부상

[經濟産業省, 2021.05.21.; IT Media, 2021.04.30.]

모바일헬스, 새로운 형태의 센서 내장형 의류 시장으로 확대

■ 모바일헬스 웨어러블 시장은 지금까지 액티비티 밴드, 시계, 안경, 장신구 등에 집중되었으나, 착용한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내장형 의류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미국 텐버 소재 기업인 사이퍼스킨(Cipher Skin)社가 개발한 센서 내장형 옷소매는 착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다양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통합 및 수집하여 원격의료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혈액 산소 포화도와 심장 박동수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에 부상을 입은 운동 선수들의 재활에 사용되며, 다리, 등과 목 부위의 부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확대 가능
- Hackensack Meridian Health Systems와 Maimonides Medical Center가 공동으로 개발한, 센서가 내장된 속옷 형태의 나노웨어와 원격환자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

[mHealth Intelligence, 2021.05.21.; Create Digital, 2021.05.20.]



4대 보건산업

미국 ASCO,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에 관심 고조

■ '21년 6월에 개최될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연례 회의에서 현재 출하 대기 중인 첨단 항암 면역 의약품과 관련 기술에 대해 관심이 집중

-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쿼프(Bristol Meyers Squibb)사의 면역 항암제와 알로겐테라퓨틱스(Allogene Therapeutics)사의 출하 대기중인 세포 항암치료제의 지속성, 기존 출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관련 연구 데이터에 대한 EQRx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

* Allogene Therapeutics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동종이형(allogeneic) 암세포 치료제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CAR-T 기반 치료제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예상

- 바이오 의약품 분야 스타트업인 EQRx는 Merck&Co의 Keytruda나 Pfizer의 Ibrance와 같은 기존의 유명한 항암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저가의 의약품을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개발
- 사노피(Sanofi)사는 유방암 치료제의 임상1상 시험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일라이릴리(Eli Lilly)사는 자사 항암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

[Biopharma Dive, 2021.05.20.; Pharmaphorum, 2021.05.20.]

미국 FDA, 소아 환자들 대상 의료기기 신속승인 저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혁신의약품에 대한 신속승인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정작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승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도모

- FDA는 '18년 고위험 의료기기 33건, 저위험 의료기기 44건을 승인하는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승인이 높은 반면, 유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

* 의료기관들은 소아에게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판단하에 당초 의약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off-label)가 자주 발생

- 소아 대상 의료기기 승인 저조 현상은 소아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 규모 자체가 작으며, 소아 대상 의료기기의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임상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
- FDA는 '19년부터 소아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1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소아 대상 의료기기혁신시스템(system of hospitals for innovation in paediatrics-medical devices, SHIP-MD)이 주목받고 있음

[Medical Device Network, 2021.05.06.; STAT, 2021.02.11.]

독일, 백신 유리병 생산에 9천만 유로 지원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COVID-19 백신의 중요 포장재인 봉규산 유리관과 유리 바이알 생산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9천만 유로를 제공

* 바이알(vial) 또는 약병은 주로 주사용 유리 용기의 하나이며, 약을 나누어 사용할 때 쓰는데, 주사약을 넣고 무균 상태로 만든 후에 고무마개로 밀폐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COVID-19 백신의 연내 보급과 공급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백신에 사용되는 기본 포장재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 지침을 '21년 5월 4일 게시하고 익일 시행
- 봉규산 유리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원 가능한 지출의 20%를 지원
- 유리 바이알 생산 시설은 신속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생산 시설 가동 기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21년 말까지 가동 시 지출의 80%, '22년 1월~3월 가동 시 65%, '22년 6월 말까지 50% 지원할 전망

[BMW, 2021.05.04.; finanzen, 2021.05.04.]

EU집행위원회, BioNTech-Pfizer 백신 추가 도입 계약 체결

■ EU집행위원회(EC)는 EU 회원국을 대신하여 바이오엔텍-화이자(BioNTech-Pfizer)와 '21년말~'23년 기간 중에 18억회분에 달하는 백신의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

- '21년 5월 20일자로 체결된 이번 계약은 EU 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성분 역시 EU 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2년에 공급이 시작되는 것을 명문화

* '23년까지 변이바이러스 백신 포함 9억회분을 공급받고, 추가 9억회분은 옵션으로 확보한 계약

- 이번 계약을 통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매 △EU가 아닌 국가나 코백스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기부 △전 세계의 공정한 백신 공급 조항을 강화
- BioNTech-Pfizer과의 추가 도입체결로 인해 유럽 지역에서 백신의 공급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에는 AstraZeneca, Sanofi-GSK, Janssen Pharmaceutica NV, Curevac, Moderna 백신이 포함
-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EU 역내 국가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횟수의 증대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

[European Commission, 2021.05.20.]

WHO, 새로운 글로벌허브플랫폼 독일에 설립

■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과 전염병 관련 정보의 국제적 공유, 네트워킹 및 데이터 분석 혁신을 주도할 뿐 아니라 세계적 보건 위협을 예측·예방·탐지·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허브플랫폼(WHO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을 독일에 설립할 예정

- WHO가 설립하는 허브는 새로운 글로벌 국가 및 파트너간 협력 기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혁신 역량을 주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점이자 위협 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질병통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
- WHO의 보건 응급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글로벌허브플랫폼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임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
- 글로벌허브플랫폼은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

[WHO, 2021.05.05.; Healthcare IT News, 2021.05.06.]

Estée Lauder 분기실적, 전년대비 16% 증가

■ 글로벌 화장품업체인 에스티로더(Estée Lauder)는 COVID-19로 인해 메이크업 수요는 감소했지만 스킨케어 및 향수로의 매출신장으로 '21년 3월 31일 마감한 분기 매출(1월~3월)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38억 6천만 달러를 기록

- 이러한 Estée Lauder의 실적은 당초 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인 11% 증가세와 1억 2천만 달러 순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으로, 이러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은 주로 파운데이션, 립스틱, 스킨케어 분야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 특히, 스킨케어 분야의 매출액은 메이크업 분야의 2배 이상 커진 31% 증가한 22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향수 부문 판매 역시 30% 증가한 4억 5,400만 달러를 기록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액이 13억 달러, 증가율 35%로 매출액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시장 매출액 증가율이 두자릿수의 호조세를 기록

* Estee Lauder의 이러한 매출 실적 호조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규모의 견조한 성장세, 중국 국내 여행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Jing Daily, 2021.05.03.; Street Insider, 2021.05.05.]

불안과 우울증,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생산성 손실 추정

■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인 불안과 우울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세계적으로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

- 직원들의 불안과 우울 증세의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는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시작된 '20년부터 기업들이 직면한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래의 작업 방식에 대해 큰 의문점을 제기

*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복지 관련 시장은 '22년 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기업들의 직원들은 요가부터 탄력근로제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업 지원에 익숙해져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의 대부분은 직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을 개선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
- 직원들의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시간 착석 근무를 피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챙기는 접근법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증거기반 접근이 필요

[World Economic Forum, 2021.05.11.; Wellcome, 2021.05.]

지적재산,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 담당

■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배송 로봇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팬데믹으로 야기되는 보건 의료, 노동 및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지적재산은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혁신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 지적재산의 보호는 스타트업은 물론 R&D 집약적인 산업에 매우 중요한데, 지적재산은 그 자체로 자본을 끌어모으고 매출액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 제조 및 마케팅에 적극 투자하는 동력으로 작용

*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들의 자발적인 라이선싱 협정은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글로벌 생산을 하도록 동기 부여

-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부터 비디오회의 소프트웨어인 줌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주요 혁신 사례의 경우, 지적 재산에 대한 법적 강제와 기업들 간의 조화로운 협력은 위조품의 범람을 막을 뿐 아니라 공급망을 유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역할 수행

[ITIF, 2021.04.29.; DownToEarth, 2021.05.31.]